

2020 새 설계

임택 광주 동구청장

“사람 중심 도새재생으로 인구 10만명 회복”

쓰레기 15% 감량 19개 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 실현

청년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최선

“2020년은 동구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는 제2의 도약 원년이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인구,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동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은 19일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올해 동구 10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며 “사람중심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예술의 거리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주민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에 대해 “유연하고 수평적인 구정 조직문화를 만들며 조직 쇠신에 힘을 기울였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인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일구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 동구가 지역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건강한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임 청장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동구는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창업지원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신규창업자들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청년창업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 지원과 청년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지닌 퇴직자가 경력을 활용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를 건립한다.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찾



임택 동구청장이 광주시 동구청에서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고 살고,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세운 공공 선진형 공동 주택의 거리를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밀그림을 그린다. 더불어 올해를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동구 원년’으로 삼아 오는 2022년까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자원재활용 등 쓰레기 배출 15% 감량을 목표로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동구는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개선을 위해 ▲청소 특별 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불법투기지역 집중단속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 설치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공동주택 RFID(무선인식) 음식물종량제 설치지원 등을 펼친다. 자원순환해설사 등을 활용한 쓰레기 재활용을 제고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임 청장은 “쓰레기 문제는 민관이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견주움을 바탕으로 혁신적 청소행정을 펼쳐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인구 등 복지 수요가 많은 동구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마을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동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된 기본복지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며 “치매안심센터와 소통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한다.

동구 곳곳의 다양한 인적·물적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동명동, 인쇄의거리 활성화 방안도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9개 유관기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권역을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올 한해 주민 복지 실현에도 정성을 쏟을 방침이다.

해체된 공동주택을 회복하고 소외와 동지 내몰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도시를 조성하고, 각 동네 마을사랑채, 주민소통방 등을 확산해 진정한 주민 중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동구민들과 힘을 모아 열린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역점사업들을 본격 추진해, 동구를 사람향기 가득한 이웃과 마을이 있는 건강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재난안전지도사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광주도시공사·조선대 업무협약 체결

임직원 34명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광주도시공사는 조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교육에서 도시공사 임·직원 34명이 ‘재난안전지도사 양성과정’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재난안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재난안전지도사 교육은 재난의 일상화,

다양화, 다양화로 인한 복합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생활안전 교육이다.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재난방재와 안전관리 ▲재난의 공학적 접근 ▲재난실무 및 현장의 문제점 ▲응급처치 실무 및 실습 ▲응급상황 대처법 실습 등을 배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광주시 11곳 월 100만원씩

부담이 컸다.

보육품질 향상·안심보육 기대

이에 광주시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운전원을 별도 채용하면, 1곳당 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이 완화되고 장애아를 위한 더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에는 동구 2곳, 서구 2곳, 남구 3곳, 북구 1곳, 광산구 3곳 등 총 11곳의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평균 2곳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원거리 통학 원아가 많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광주시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를 비롯해 통학차량 연료비 월 2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월 지급액의 80~100%), 급·간식비 등 장애영양아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 市 한의사회 난임부부에 한방치료 지원 업무협약

100여명 대상 한약·침구치료

광주시와 광주시 한의사회가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시 한의사회는 지난 17일 시청 비즈니스홀에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자연 임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는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투입해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광주시한의사회는 대상자 모집,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한방치료 제공, 진료비 일부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시내 39개 한방방 의원원이 참여한다. 총 1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 거주지에 가까운 한의원을 지정해준다.

대상자는 집중치료 3개월과 경과치료 3개월 총 6개월 동안 본인의 체질 및 건강



광주시와 광주시 한의사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청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난임 진단 여성이므로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한 시민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3개월 간 약제비 및 혈액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침구치료 등 일부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월 20일까지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선정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서구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광주시 서구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15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로 오는 2월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안전총괄과에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건축물대상의 구조·용도·사용승인 등 을 고려해 점검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4월부터 소유주와 협의 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분야는 건축·토목·소방·전기·가스 등이며, 민간전문가가 소유주가 신청서에서 선택한 분야를 직접 점검한다.

단 제1·2층 시설물,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민식 기자 mskim@kwangju.co.kr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사업 공모

광주시 등 록 단체 대상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라 사업비반

오늘부터 사업계획 접수

지원하며,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 자부담을 총사업비의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타 단체와 유사·중복 사업,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정치·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도 지원에서 배제된다.

광주시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사업’을 공모한다.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가 대상이다.

지원 사업은 7가지 유형이며 ▲사회통합과 사회약자 보호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시민 소통과 선진시민의식 함양 ▲여성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안전도시 구현 ▲호남권산협력망 구축협력이다.

지원 대상은 소관부처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오는 3월 30일 광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공지사항)에 게시된다.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678개다. 등록단계 현황은 광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지원)에 분기별 공지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광주시청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비영리

단체 대상은 소관부처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오는 3월 30일 광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공지사항)에 게시된다. 광주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678개다. 등록단계 현황은 광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지원)에 분기별 공지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공고도: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비고. Lists 10 auction item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비고. Lists 10 auction item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분양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수익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